

天^천
理^리
教^교
教^교
典^전

全 卷

267
144

014434-000-7

特16-706

天理教教典〔諺文版〕

中山 新治郎 / 編

M44

ABB-0812



현리교고연 목록



제오슈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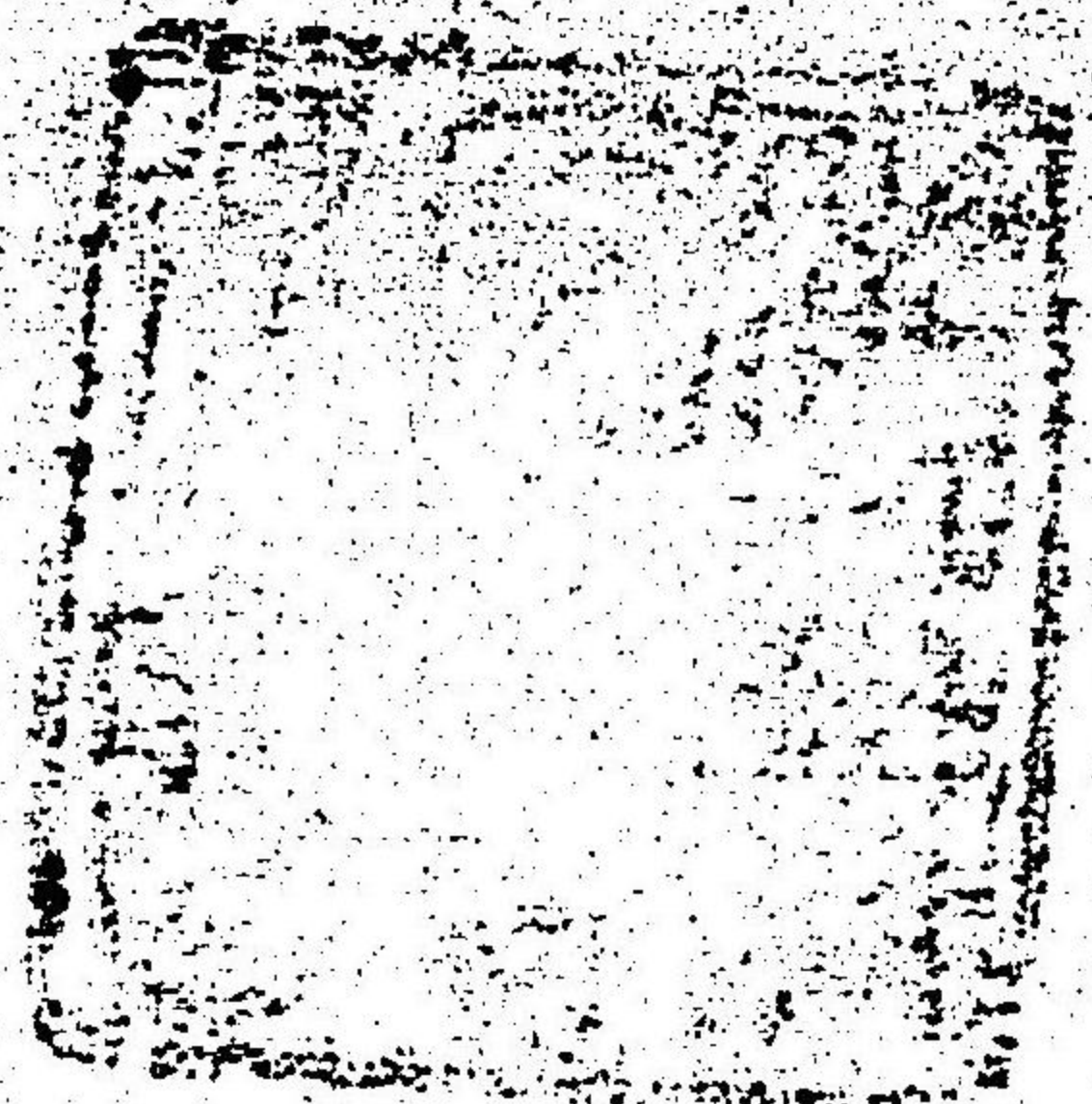
제육불제장

제칠입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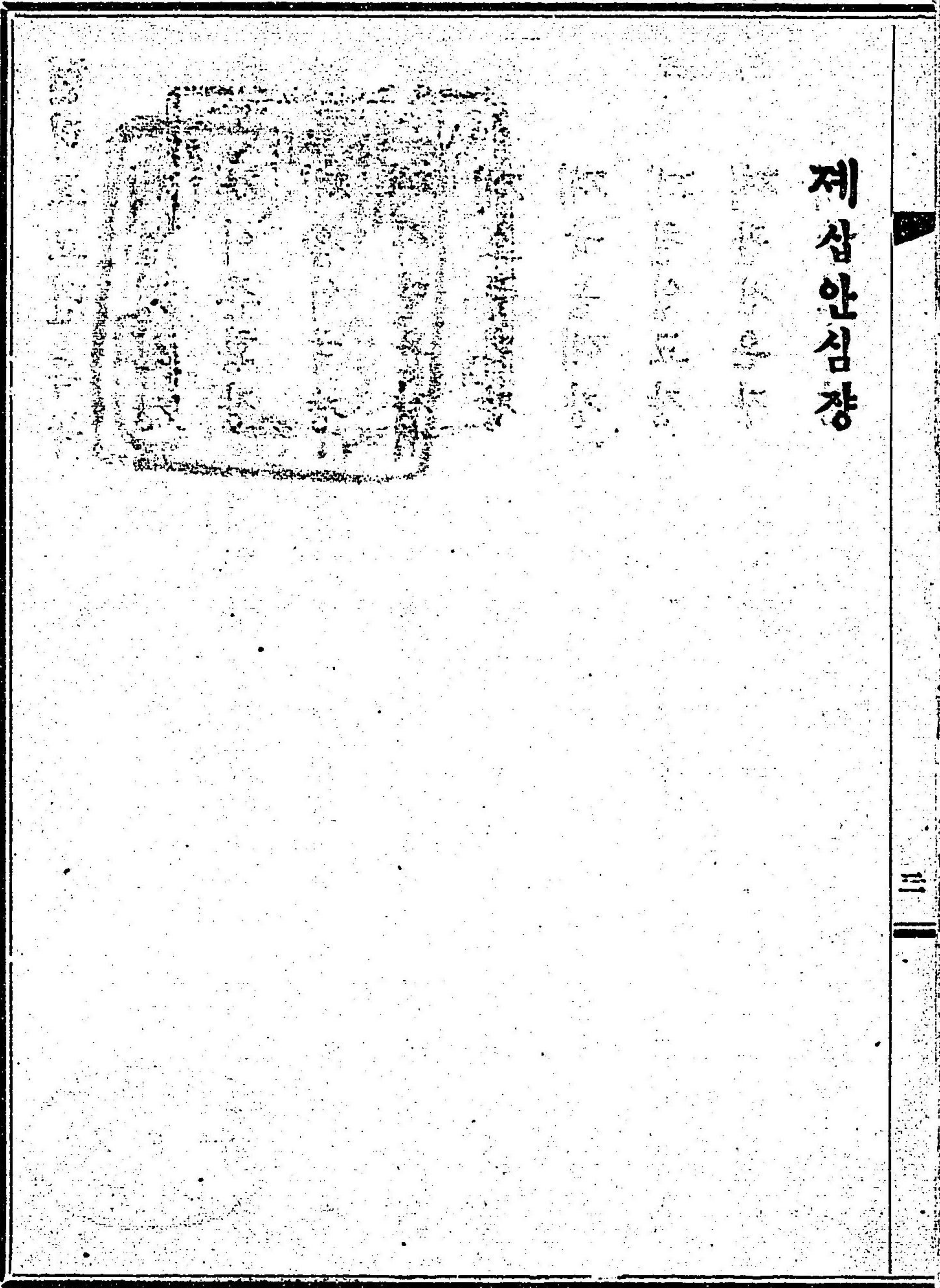
제팔신은장

제구신약장

明治
44. 8. 29
内交



제삼안심장



현리고고연

제삼안심장

하늘의 정이 멀고 오리가 만물의 성을 여성하고 화를
여기름이 써슈이 지안년바썩는 신명이 고로하시난하
날나치에의지함이 라우쥬의삼나만상이그실영한덕
의후하게할용하난더러하시안이라못할저로다그림
으로쥬장흥신신명이계시고나누어맛튼신명이잇서
서각각그실영한덕의묘하게씀을인하야신명의일흠
을표하여빛너나나더기하날신명쌍신명팔백만신명
이라이르년거시라이럼으로써그실영의근원얼말하

면 곳한 분신명이시고 그 쓰이난 데를 나누어 말하면 여
리 분신명이니 더기 조화의 큰 근원이요 만가지의 섹리
근본이라 누가 넓히우려르고 공경하여 성기저안이 하
리요 그러나 팔백만 신명일다 그 이름을 칭송하여 넓히
고 절하기 난 사람마다 능히 할비안인고로 실영덕이가
장현저한 열 분신명을 받드려기도 하니 곳곳 상입존국
협퇴존공침정존 더점변존면족존황근존이사락존이
사책존 더일영존월야견존이라 열 분일총칭하여 천
리 더 신이라 하난 나라

제이존황상

신명은 만가지를 주창하여 맞트시고 황상은 국토를 거
나려다 서리니 국토은 신명이 경영하여 주신 바요 황상
은 곳 신명의 후에라 황상이 국토에 인군이로 임하신 거
시실상하날 신명의 명중심을 인함이 요창심을 사랑하
여 기르고 성성하난 차도 쓰한 신명이 주신 바라 세계너
른 더고 금에 나라를 세운 지 수가 음고 그중에 황제 되고
왕후된 처또한 만으나 그러나 우리 황실 처름하날의적
통일이으고하날의도 음얼보전하여 두어서 국토를유
무하난하날버실을 쓰여 주신 지어에 곳에잇시리요 곳
우리 황실이 인군이중에 참인군이 되어 보비복조가하날

과쌍으로 한가지 무궁할길 알지라그런고로 우리 항상
이하날에셔 증거하신 인준인준로 확실이 밋고 조화성육
하신 신명의 은혜를 사례하기 난형결갓튼 지성으로써
충성일항실에 다함이 가하니라

제삼의국장

국토란 자는 신명이 경영하시 사람의 씨가 번성할쌍을
증하여 주사 신명의 후에 우리 항상으로 하여금 써거느
려다시리게 하시리라 이로 무릇 신하와 백성된지
이 신명의 뜻을 받들고 이 인준의 뜻을 몸바다 신명일공
경하고 인준일념히며 갓치서 루사랑하고 호위하여 항

상그세상은 유가발달하기를도 모으며 다고다시려구
지성취행년공거두기를피약할거시라 함물며 우리선
조가 신명의 은혜와 인준의 덕택아리에서이 국토의사
리셔의리와 용맹으로나라의 감흥정성을극진이하여
세사로항실의운슈를부드러도와음이까분야이난실
상신명을성기고인준을성기난도리요또한우리선조
의뜻을맛추난비니라

제사명운장

더위가가면추위가오고사시가순이행하여일월이그
위를곳치지안이하고착한이난영화되고악한이난멸

하 고 바 른 이 난 덕 덕 흥 고 빛 두 러 전 이 난 군 석 하 나 니 하
날 의 잇 서 셔 이 결 천 도 라 흥 고 사 람 의 게 잇 서 셔 이 결 인
도 라 할 지 라 임 의 국 도 가 잇 시 면 가 히 사 람 니 읊 지 못 흥
고 임 의 사 람 이 잇 시 면 가 히 부 모 와 처 자 가 읊 지 못 할 지
라 그 런 고 로 신 명 이 사 람 의 게 인 룬 더 도 로 써 부 처 주 서
니 비 유 흥 면 천 도 가 순 환 하 여 그 길 을 변 치 안 이 함 과 갓
튼 지 라 인 군 과 아 버 이 게 잇 서 셔 난 충 성 과 효 도 가 되 고
아 들 과 아 오 의 게 잇 서 셔 난 사 람 과 우 의 함 이 되 고 너
외 간 에 잇 서 셔 난 화 순 함 이 되 고 붓 과 친 구 의 게 잇 서 셔
난 밋 봄 과 의 리 가 되 고 일 반 사 람 의 게 난 어 질 고 사 람 함

이 되 나 니 그 종 요 함 은 너 뜻 을 성 실 이 하 여 남 열 더 하 년
더 지 나 지 안 이 할 지 라 하 날 의 하 날 도 가 읊 시 면 곳 어 들
고 사 람 이 사 람 의 도 읊 시 면 이 난 사 람 이 안 이 라 모 롬 직
이 널 니 비 위 셔 셔 그 이 치 의 잇 년 바 를 받 키 고 흥 실 열 듯
라 이 하 여 그 도 의 인 년 바 를 구 진 이 한 즉 가 이 셔 사 람 의
근 본 된 분 슈 를 온 전 이 한 다 이 를 지 로 다

제 오 슈 덕 장

하 날 신 명 이 사 람 의 게 부 처 주 신 신 흥 에 영 광 을 덕 이 라
이 르 나 니 곳 어 전 마 암 의 근 본 이 요 정 성 뜻 의 썩 러 라 사
람 의 승 품 이 본 더 지 극 히 말 썩 지 극 히 순 전 함 으 로 일 과

물건에 썬고 물드림을 인하여 능히 청탁의 어기 썬이 음
지 못하나니 그 탁한 자는 비옥이 하자 를 썬임 갖고 그 말
근자 도 썬한 사람의 질기 년 것과 남의 달 너 멀인 하여 물
육이 썬썬로 가 리고 막 어 썬 미 양 썬 썬이 말근 거 을 열 드
림힌 것 갖한 지 라 니 림 으 로 썬 썬 사람이 각 각 보 지 안 년 바
의 상 가 흥 여 신 명의 빛 치 여 보 심 을 두 려 위 흥 고 유 명이
통 흥 여 보 난 결 부 썬 러 위 흥 여 물 육 을 익 제 흥 고 항 상 그
뜻 을 청 성 되 게 흥 여 가 히 하 날 이 주 신 영 광 을 온 전 이 할
지 라 터 기 덕 을 닦 년 자 는 썬 썬 사람 을 이 루 난 흥 흥 한 뜻 이
요 인 룬 열 발 키 난 근 본 터 이 라 할 지 로 다

제육불제장

덕을 닦는 법이 불제로 썬 흥 흥 함 을 삼 나 니 불 제 라 하 는
것 은 죄 악 과 드 리 운 것 을 썬 썬 바 리 고 신 명이 부 처 주 신
근 본 성 품 에 도 라 음 을 이 름 이 라 그 근 원 이 신 명 시 터 로
부 터 비 로 소 하 야 지 금 까 지 전 하여 오 더 니 고 조 썬 썬 여
덜 까 지 마 음 의 썬 썬 결 을 말 심 흥 사 착 한 터 로 가 는 길 을 가
리 처 보 이 시 니 하 나 는 가 로 터 람 하 는 마 음 이 요 들 처 는
인 식 한 마 음 이 요 썬 썬 썬 는 사 랑 흥 는 마 음 이 요 넷 썬 썬 미
위 흥 는 마 음 이 요 다 썬 썬 썬 는 원 망 흥 는 마 음 이 요 여 썬 썬 썬
는 분 닦 는 마 음 이 요 일 곱 썬 썬 는 거 만 된 마 음 이 요 여 덜 썬

는욕심이라이여덜가지가이치에마지면병될거시업
스나조곰이라도이치에어괴면큰저앙을너나니비유
하신말심이마음을드럽히는하자요마음거울을가리
우는씩쓸이라이럼으로사람이각각괴운을고요이
고혼신을진정하여변된마음씩쓸을써서버리고중
정한지극히착한결을보전한즉반다시능히활난과저
앙을버셔물니치고김분하날김분쌍묘한지경에나가
나니더져여덜가지씩쓸을버리지안이하면능히여덜
가지착한일을온전이못할저니라

제철입교장

사람의실령한혼이하날신명에오르나니본더져고
멸하지안난영테로괴묘한발용이무궁한고로닥거기
르고고요이진정하여광명이통철한지경에달하여영
연이항상말거셔한점전에도업난더이른즉활연이신
명이감접하니이것을신명과사람이합하여하나가
되난지극한지경이라이르난이라무릇억만인중에한
사람이라도이것을능히한지잇시면신명이곳그사람
으로하야금하고를바다세상에전하게하시나니이럼
으로그사람의말이곳신명의말심이요그사람의뜻이
곳신명의명령이라당초의교조게셔부인의몸으로일

즉 신명을 공경하고 사김흔이 처를 궁구하여 세워 처서 천리를 받키시니 신명이 교를 세우난 큰적책을 익기신지라. 슈십년 동안에 교를 펴시되 한가지라도 이결위하진 안이함이 업난지라 이럼으로 사람이 각각 교초의 말씀하신 비곳하날 신명이 가라친거신 줄로 확실이 밋어서 써 마음을 편히 하고 목숨을 세울쌍을 삼아서 더욱 가라치신 뜻을 받드리준 형이하한 업난 신명의 은혜를 감을지니라

제 팔 신은장

사람이 만일 마음의 쓰쓸을 버리고 신명이 부쳐 주신 근

본성품에도 라가서 현저한 일과 그 우한 일에 다 도리어 기치지 안이 한즉 신명이 반다시 은혜로 사랑함을 드라워 주시나니 은혜로 사랑하난 자는 일체 활난 지익을 베키여 주시고 사라 쓸새나 죽은새나 한가지로 영혼이 장구하여 쾌락히 하날이 주신 경사와 복을 온전히 받나니 옛적에 이를 일너 신명의 은혜를 입은 거시라 하나니 곳 천리 더신에 영광이 그 심흔에 가득히 차서 인하여도와 주시여 죄악을 물이치고 선공에 나가난 고로 사람이 비록 잠간사이라도 신명의 은혜를 잊지 마려서 그 사랑하심을 웃기를 괴약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쉬지 안난마

음을 가져 능히 밋고 공경하여 우리름이 가한지라 자의
가임의 은혜를 입었거던 또한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이
참된 교에도 나와 한가지 신명의 은혜를 입게 할지니 이
거신이른 은혜를 감는도라 하나니라

제구신약장

신명의 풍유가 신명시 더부더잇서 이제까지 전한 거시
라 사람이 김히 조화의 성육하는 은혜가 광더 무궁한 걸
싱각하면 누가 김부고 김버서 썩늘고 춤추지 안이하리
요 더기 정이 심중에 동하면 자연말에 나타나고 말로 하
여 부족한고로 탄식이 나고 탄식하여 부족한고로 노리

가나고 노리하여 부족한고로 손으로 춤추고 발로 썩는
걸아 지못함은 이치라이림으로 고 조셔신약노락을
지으사부지런이 행하게 하시거든 본디 신명의 염녀하
신걸위로 하고 신명의 은혜를 사레하는도리에 지나지
안이하거시나 그러나 또한 부부의 화합한 거시일로
부터 인도하나니 날마다 도라가 의지할 뜻을 부치여 밋
는 마음으로 다 거행하면 그 사이에 자연 신명과 사람이
하나 갖치화하여 피약고다행한복을 성하나니라

제십안심장

살고 죽음이 두가지가 안이요 가난하고 부하고 순하고

역함이 쓰흐명이라 중요함이 다만 사람의 근본분을
 구진이 하여 하날 신명에 명을 기다릴지니 진실로 하날
 니치를 발키고 사람의 도를 행하야 우으로 하날이 붓그
 립지안코 아리로 쌓이 붓그 립지안 이 한즉 웃지 번거롭
 고 답답한 곳이 잇스리요 지금 더져 신명을 공경하는 자
 는 인권을 능히는 거시요 인권을 능히는 거는 나라를 사
 랑하는 거시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는 인권을 발키는 거
 시요 인권을 발키는 거는 덕을 닦는 거시요 덕을 닦는 거
 는 환난과 재앙을 면하는 거시요 환난과 재앙을 면하는
 자는 하날 니치 신명의 가리치신 것을 밋어 심입음이요

하날 니치 신명의 가리치신 것을 밋어 심입는 자는 신명의
 은혜를 입나니 풍유에 의지하여 신명과 사람이 화합하
 면서 리금경사와 복을 받나니 진실로 이갓치 하면 몸과
 마음이 곳편안 하리라 열장 가리친 법은 한 가지니 거의
 하날 니치의 현묘 홀결 참고 신혼이 멀치안는 니치를 구
 구하여 천명을 안심할지여다

267
144

著作
權有

明治四十四年七月十五日印刷
明治四十四年八月十五日發行

編輯兼發行者

奈良縣山邊郡丹波市町大字三島

中山新治郎

印刷者

京城長谷川町一丁目二番地

福田正治郎

印刷所

京城長谷川町一丁目二番地

福田印刷所

電話一〇二七番

同治四年

正月

初一日

同治四年

正月

初二日

同治四年

正月

初三日

同治四年

正月

初四日

同治四年正月二十八日

初五日

初六日

初七日

初八日

初九日

初十日

十一日

十二日

十三日

十四日

十五日

十六日

十七日

十八日

十九日

二十日

二十一日

二十二日

二十三日

二十四日

二十五日

二十六日

二十七日

二十八日

二十九日

三十日